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유럽·유라시아 지역 트럭운전 인력 부족률, 올해 40% 급등 전망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 코로나19에도 성장 지속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Hapag Lloyd, 북유럽-서아프리카 기항지에 르아부르 추가

●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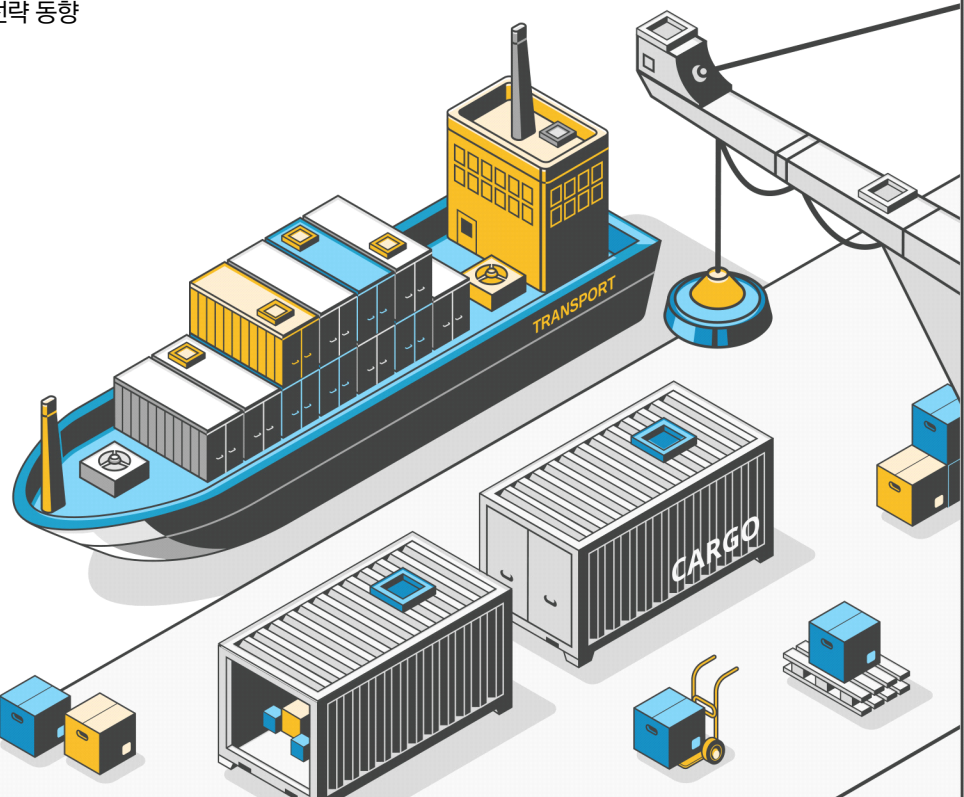
- 미국 배터리 공급망 전략 동향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바이든 대통령, '22년 외항해운개혁법안 서명 ... 해운업체 감독 강화
- Maersk, 북미지역 콜드체인 역량 강화

● 공지사항

-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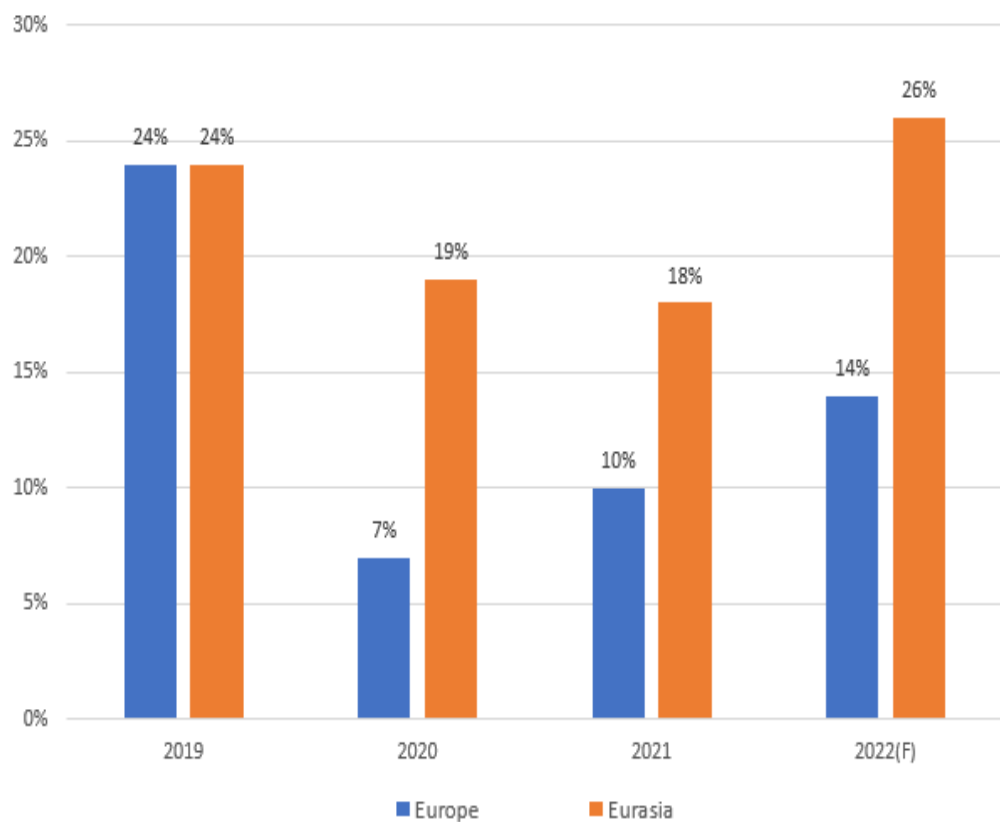


유럽·유라시아 지역 트럭운전 인력 부족률, 올해 40% 급등 전망

● 국제도로운송연합¹⁾에 따르면 유럽²⁾ 및 유라시아³⁾ 지역의 트럭 운전자 부족률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상당한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함

- 지난해 유럽 지역의 트럭 운전자 부족률은 임금 인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한 10%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40% 증가한 14%로 전망됨
-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트럭 운전자 부족률에 큰 변동이 없었지만 금년에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약 44% 증가한 26%로 전망됨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트럭 운전자 부족률(2019~2021년, 2022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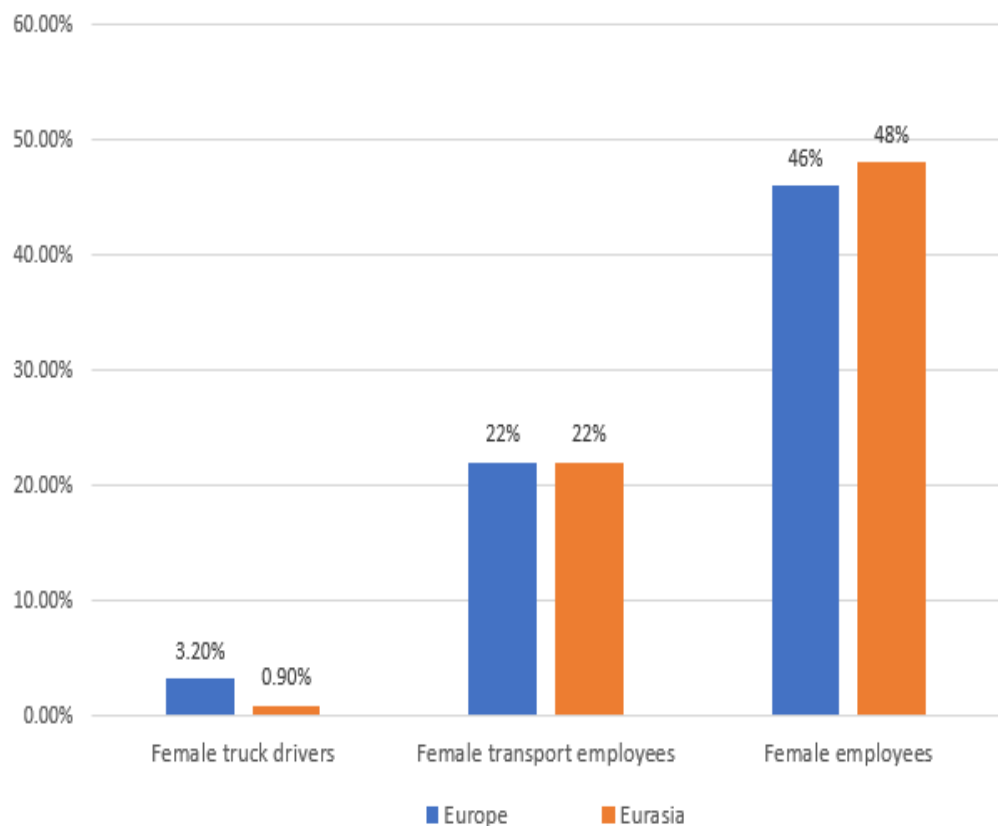
자료 :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Driver Shortage Global Report 2022: Summary*, 2022.

- 1) 국제도로운송연합(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IRU)
- 2) 본 조사에서는 유럽 지역 국가들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벨기에, 네덜란드가 포함됨
- 3) 본 조사에서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가 포함됨

➤ 2021년도 기준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트럭 운전업의 여성 종사자율은 기타 운수업 및 산업 전반의 평균 수준 대비 현저히 낮음

- 유럽 지역 산업 전반 및 운수업의 여성 종사율은 각각 46%와 22%인 반면 트럭 운전업의 여성 종사율은 3.2%임
- 유라시아 지역 또한 산업 전반 및 운수업의 여성 종사율은 각각 48%와 22%인 반면 트럭 운전업의 여성 종사율은 0.9%임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트럭 운전업/운수업/산업 전반 여성 종사율(2021년)



자료 :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Driver Shortage Global Report 2022: Summary*, 2022.

자료 : 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 *Driver Shortage Global Report 2022: Summary*, 2022.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
코로나19에도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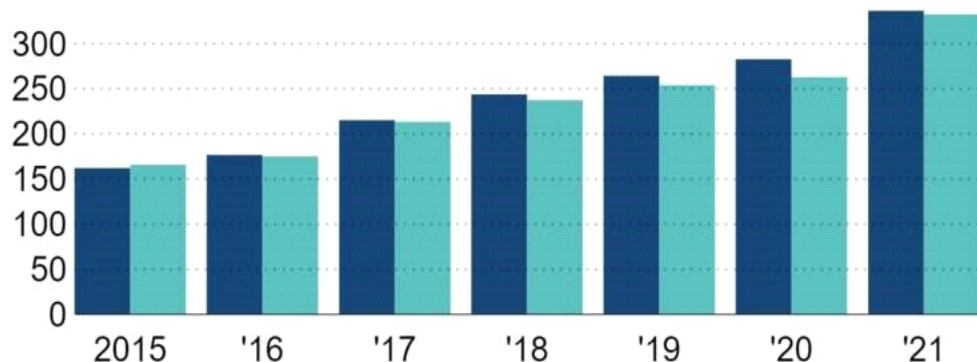
-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으로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감소했으나,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감**
 -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경 폐쇄와 공장 가동 중단 등을 비롯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여러 외부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은 빠른 회복력과 함께 꾸준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 항공청(CAAV)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1년 국제선 항공편이 90% 이상 감소했으나, 항공화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올해 1분기 기준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2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함
- ▶ 베트남 항공화물의 수출입 규모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입 모두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함**
 - 베트남 항공화물의 수출입 규모는 지난 2015년 1,50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매년 10% 이상 큰 성장률을 보여 지난해에는 수출과 수입 각각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큰 실적을 기록함
 - 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화물 운송 비용 또한 크게 증가했으며, 여전히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4배 높은 운임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베트남 항공화물 수출입 규모 변화(2015-2021)

Vietnam turned net exporter of goods from 2016

Trade value in billions of U.S. dollars

■ Exports ■ Imports



자료 : www.logisticsinsider.in, (검색일 : 2022.6.22.)

- ▶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 성장의 핵심은 대미 수출 증대로 향후 항공화물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자국 항공사 부재로 글로벌 물류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베트남 항공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항공사는 총 6개가 있으나, 여객운송만 담당할 뿐 항공화물 운송에 적합한 항공사 부재로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베트남 항공화물 시장은 DHL, FedEx, Cathay Pacific 등 글로벌 물류기업이 약 90%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 베트남 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IMEX Pan Pacific Group은 최근 자국 항공화물 시장 진입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연말 본격 운영할 예정임

 - IMEX 그룹은 항공화물 시장 진입을 위해 자회사(IPP Air Cargo)를 설립해 베트남 최초의 항공화물 운송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며,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정부 승인을 획득함
 - 초기 5대의 화물기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5년 동안 화물기 운영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임
- ▶ 베트남 정부는 자국 항공화물 시장 및 해당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화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자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바이든 대통령, '22년 외항해운개혁법안 서명 ... 해운업체 감독 강화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에 서명함

- 지난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OSRA-98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요 해운 개혁법안인 OSRA-22(2022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에 서명함
- 이에 따라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가 컨테이너 관련 수수료에 대해 해운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FMC에 2025년도까지 1억 6,400만 달러를 할당할 예정이며, 이는 2023년도까지 6,850만 달러를 승인한 하원의 버전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임
- OSRA-22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는 찬성 396명, 반대 42명으로 통과됐음
- 서명식에 참석한 미국 농업국(American Farm Bureau)의 Zippy Duvall 회장은 “수출입을 제한하는 공급망 혼잡에서 야기된 수출 문제로 인해 농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약 250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 손실을 보았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OSRA-22 법안에 지지함에 감사드린다”고 전함
- 또한, 그는 “OSRA-22 법안은 해운업체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FMC에 권한을 부여해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함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 소매업자, 농부 및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양당 기반의 외항해운개혁법을 통과시킨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함

바이든 대통령 OSRA-22 외항해운개혁법(안) 서명



자료: White House, www.youtube.com/c/WhiteHouse

● OSRA-22의 핵심 내용은 FMC의 권한을 강화해 해운업체를 감독하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임

- FMC는 국제 해상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출 관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 다른 행정법 판사를 포함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예정임
- FMC는 법안 서명 후 45일 이내에 체화료(컨테이너터미널 안 컨테이너 경과 보관료 · Demurrage) 및 지체료(컨테이너터미널 밖 컨테이너 반환지체료 · Detention)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1년 이내에 의무화되어야 함
- FMC는 공급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이 국제 해상 운송 공급망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긴급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음
- 또한, 외국 국적 선사들은 4분기마다 FMC에 미국 항만에서 취급한 수출입 물동량과 공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개수를 보고해야 함
- 기타 규칙 제정에는 고객에 대한 해운업체의 차별적 관행을 정의하고 3년 이내에 국가 등록 운송 교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함
- OSRA-22에 따라 FMC 확장 승인의 일환으로 향후 6개월간 해운업체가 수출업자와 소형 화주를 위한 거래 또는 협상을 해운업체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함

● OSRA-22에 따라 내륙항 이용을 검토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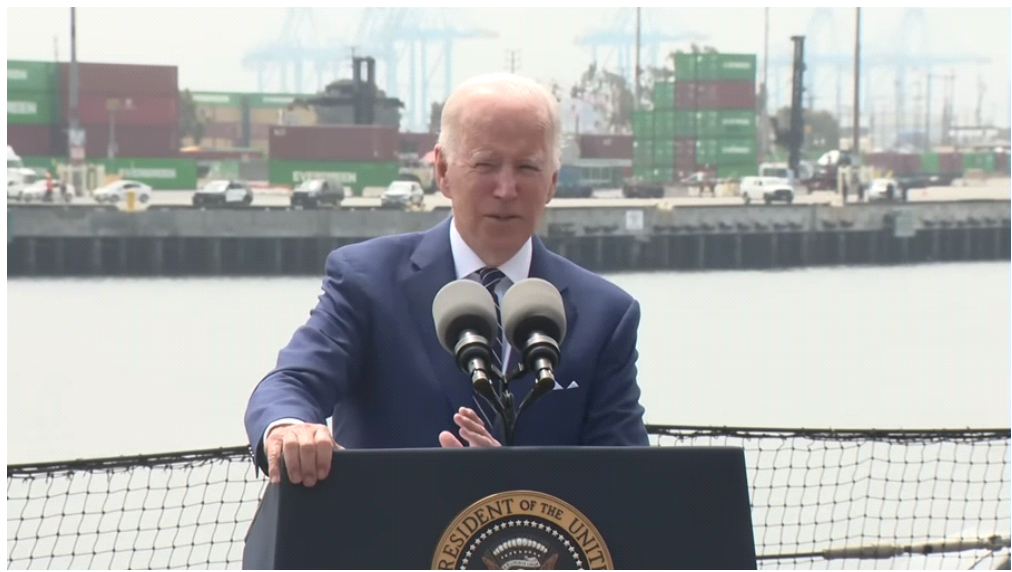
- OSRA-22는 항만, 해운업체, 수출 터미널, 철도 및 트럭 운송사의 대표와 함께 미국 교통부, 미국 해사청 (MARAD), FMC가 협력해 컨테이너 장치 및 운송을 위해 내륙 항만 사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법안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초과 화물을 보관할 연방 및 비연방 토지를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함
- 항만 수용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 OSRA-22는 미국 항만 관련 기술이 노동 및 화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1년 이내에 보고해야 함

● 바이든 대통령은 LA항을 방문해 해운법 개혁에 대한 승인을 촉구했음

-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LA항을 방문해 해운법 개혁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을 촉구했음
- LA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공급망을 통해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내가 요청한 대로 이러한 기업을 단속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주요 해운사는 3개 얼라이언스로 대부분 통합되었으며 해상운임을 1,000%나 올렸음을 언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미 정부는 OSRA-22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과다 산정된 해상물류 관련 비용을 낮추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FMC는 OSRA-22 시행을 위해 해운업체 관련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예정
 - FMC Daniel Maffei 위원장은 “우리의 작업 방식을 바꾸고 화주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이 법안의 결과로 위원회는 훨씬 더 유능하고 강력하며 활동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 전함
 - 앞으로 몇 개월 동안 FMC는 OSRA-22의 새로운 규정 제정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운업체가 따라야 하는 특정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예정임
 - 체화료 및 지체료에 중점을 두었던 FMC의 해운기업 모니터링 방안이 농업 수출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며, 소비자 불만 부서에 수출 전담 직원을 포함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불만을 제기하는 화주에 대한 보복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바이든 대통령 LA항 방문 연설



자료: White House, www.youtube.com/c/WhiteHouse

Maersk, 북미지역 콜드체인 역량 강화

- ▶ 지난 6일 Maersk가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 새로운 콜드체인 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새로운 창고는 2022년 10월부터 Maersk Performance Team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임
- ▶ Maersk는 현재 북미지역에서 60개 이상의 유통 및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앤드-투-앤드(end to en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ilot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Maersk가 제공하는 앤드-투-앤드 서비스 개념



자료 : www.maersk.com, (검색일 : 2022.06.22.)

- ▶ 새롭게 운영될 콜드체인 창고는 인근의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창고는 뉴저지 엘리자베스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가까운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항만에서 차로 1시간, 볼티모어와 델라웨어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있음
- ▶ 아울러 새로운 콜드체인 창고에는 Maersk에서 운영하는 Ocean Services와 뉴저지의 엘리자베스 터미널 및 인근 2천만 명의 소비자가 생성한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가 반영됐음
 - 창고의 크기는 15,590㎡이며 건식 스프링클러 시스템, 냉장 도크, 냉장 및 냉동 보관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Maersk 북미지역 콜드체인 담당자 Diogo Lobo씨는 뉴욕 및 뉴저지 대도시 지역의 콜드체인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Maersk가 북미지역 콜드체인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함
- 현재 Maersk는 전 세계적으로 7개의 콜드체인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칠레, 폴란드, 러시아, 인도 등) 2050년까지 50개로 늘릴 예정이고 미국에는 휴스턴(Houston)과 뉴왁(Newark)에서 2개의 콜드체인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Maersk가 운영하는 휴스턴 콜드체인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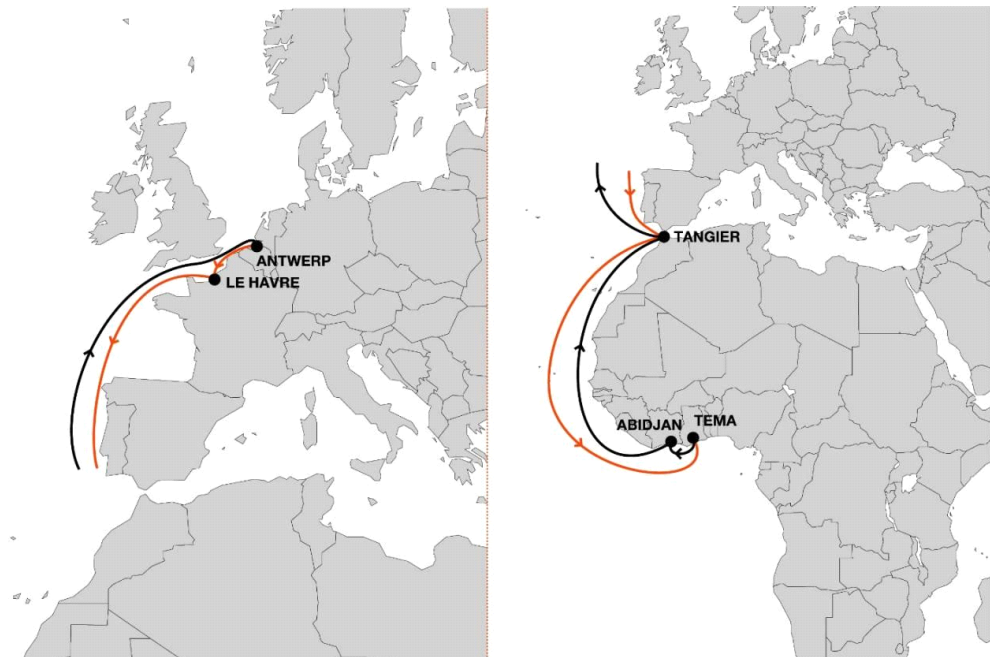


자료 : www.maersk.com, (검색일 : 2022.06.22.)

Hapag Lloyd, 북유럽-서아프리카 기항지에 르아부르 추가

- MHapag-Lloyd가 WAX(West Africa Express) 기항지에 프랑스 르아부르(Le Havre)를 추가해 서비스함
 - 본 서비스 변경은 유럽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의 순환 항로에서 두 지역 간의 화물 운송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변경으로 프랑스와 베네룩스에 가나의 테마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까지 운송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변경된 서비스는 3,500TEU급 NileDuth Breda호가 르아부르에 도착 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
- 화물 계획 및 운송 편의를 위해 WAX 서비스는 모로코 탕헤르 항을 북유럽 및 서아프리카 시장의 주요 연결 지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 르아부르가 주요 관문이 되는 것 외에도 모로코의 탕헤르(Tangier)는 Hapag-Lloyd 서비스를 통해 서아프리카와 함부르크 연결을 보장하고 카사블랑카 수출입 시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apag-Lloyd의 WAX 서비스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 2022.06.22.)

- ▶ 또한, 이달 초 Hapag-Lloyd는 미국 철도회사 Norfolk Southern, Union Pacific Railroad 및 버지니아 항만과 협력해 OceanS Bridge Express 서비스를 시작했음
 - 본 서비스는 버지니아 항의 Norfolk 터미널을 출발해 시카고의 Union Pacific 터미널을 경유해 서부해안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임

OceanS Bridge Express 서비스



자료 : www.prnewswire.com, (검색일 : 2022.06.22.)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www.hapag-lloyd.com, www.prnewswire.com, (검색일 : 2022.6.22.)

미국 배터리⁴⁾ 공급망 전략 동향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냈음**
 - 오랫동안 정체된 자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 산업을 강조하고 있음
 -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들 수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성명과 함께 2021년 3월 자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약 2천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 차량 소유주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용차 300만 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
 - 2030년까지 미국 내 생산되는 버스를 무탄소/전기버스로 전환
 -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배 확충(10만 개 → 50만 개)
 - 미국산 전기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 최근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660만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9%에 해당
 - IHS Market은 2025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을 1,220만대로 전망
 - 이와 더불어 글로벌 배터리 수요는 237GWh이며(2020년 기준)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을 반영할 때 2030년경에는 3,282GWh로 전망
 - 배터리 용도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2020년에는 65%였으나 2030년에는 89%로 증가해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시장의 수요를 주도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배터리 수요 (202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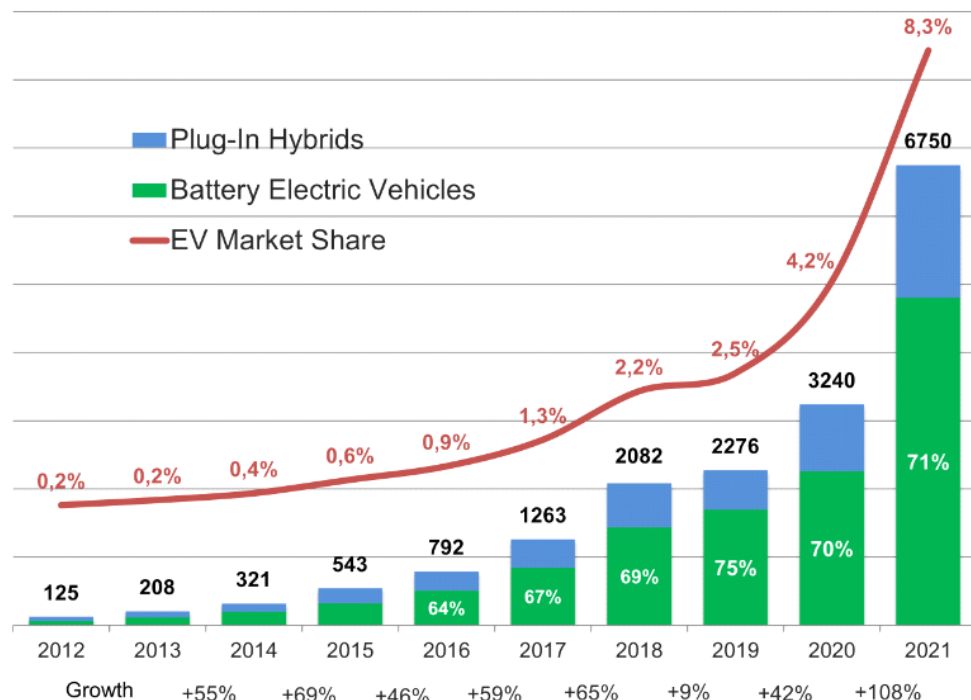
	2020년	2025년	2030년	CAGR (2020~2030)	증가율 (2020~2030)
소형(가전용)	73	125	123	5.4%	40.7%
중형(전기차용)	143	1,160	2,956	35.4%	95.2%
대형(ESS ⁵⁾ 용)	21	93	203	25.5%	89.7%
합계	237	1,378	3,282	30.1%	92.8%

자료 :SNE Research (2020) 「Global Battery Market Outlook and Key Issue」 참조

4) 본문에서 언급하는 배터리는 2차 전지로서 충전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의미함

- 배터리 전문 연구기관인 SNE에 따르면 소형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 정도 상승하는 반면 전기자동차용 중형 및 대형 배터리는 연평균 약 25~35%를 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배터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 현재 글로벌 주요 배터리 생산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파나소닉 등은 모두 자사 및 계열사에서 유발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한 특징이 있음
-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수요에 비해 미국 시장은 안정적 배터리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IHS Mark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5년까지 2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세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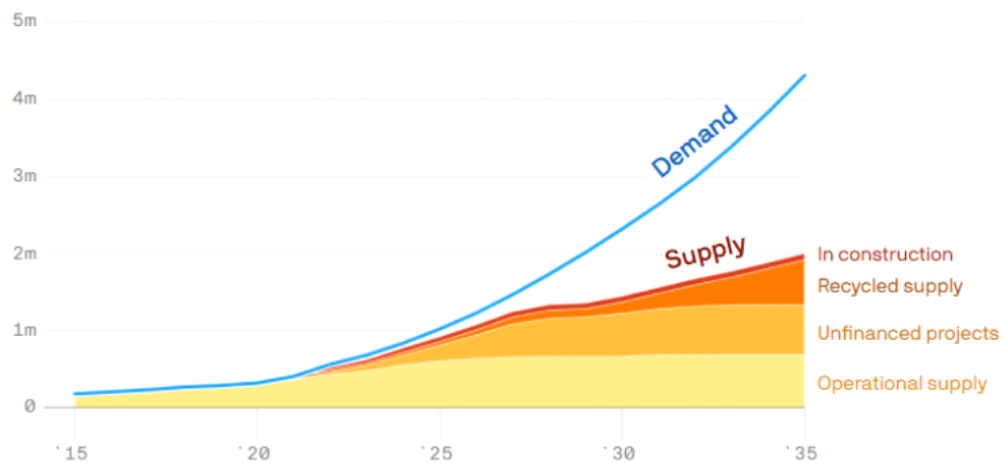


자료 : EV-volumes.com 홈페이지 참조

- 5)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 수요가 적을 때에는 전력계통에 저장하였다가 수요가 많을 때는 미리 저장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전기차 배터리 1GWh당 1만 5천 대의 전기차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2025년에 약 146GWh에 달하는 생산능력이 요구됨에도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미국 내 배터리 공급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미국의 총 배터리 생산능력은 약 48GWh 정도이나 이 중 미국기업이 공급 가능한 것은 0.7GWh로서 전체 1.7% 수준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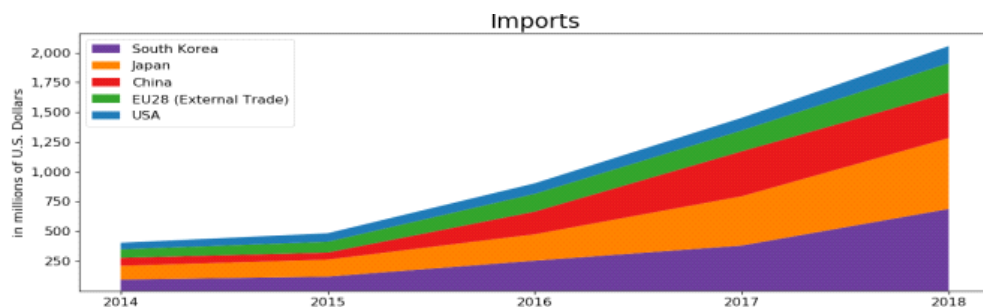
글로벌 리튬이온배터리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TWh)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동맹 vs 독립, 美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부족 대응 전략」 참조

- 2020년 기준 미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은 108억 달러이며 이중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함
 - 이중 한국은 21%, 중국 41%, 일본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23억 6천만 달러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수출했음(2020년 기준)

미국의 리튬제품 (HS 2836.91 & 2825.20) 수입 현황



자료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Global Value Chains: Lithium in Lithium-ion Batteries for Electric Vehicles」 참조

- 아울러 미국은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및 전해액 등의 공급도 불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관련 소재 기업으로는 듀폰, 3M, BASF 등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영향력은 미비함

-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외국 제조사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음

주요 전기자동차 모델과 배터리 제조사 (2017년 기준)

제조사	모델 (판매량)	조립장소	배터리 용량 (kWh)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조립 장소	배터리 셀 생산 장소
테슬라	모델 S (27,060)	미국	75 또는 100	파나소닉/테슬라	미국	일본
	모델 X (21,315)	미국	75 또는 100	파나소닉/테슬라	미국	일본
	모델 3 (1,772)	미국	50-74	파나소닉/테슬라	미국	미국
쉐보레	볼트 EV (23,297)	미국	60	LG 화학	미국	대한민국
닛산	Leaf (11,230)	미국	30	Automotive Energy Supply	미국	미국
피아트	500e (5,380)	멕시코	24	SB LiMotive	미국	미국
폭스바겐	e-Golf (3,534)	독일	35.8	삼성SDI	헝가리	대한민국
포드	Focus Electric (1,817)	미국	33.5	LG 화학	미국	미국
BMW	i3 (6,276)	독일	22-33	삼성SDI	헝가리	대한민국
기아	쏘울 EV (2,157)	대한민국	27	SK 이노베이션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료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he Supply Chain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참조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IBIS World에 따르면 2020년 리튬배터리 미국 제조시장은 약 40억 달러의 규모이며 이중 일본의 파나소닉이 45.8%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2위는 대한민국의 LG화학이 11.1%로 그 뒤를 이었음
- 2020년 기준 미국은 약 4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리튬배터리(HS 850760)를 수입했으며 16억 5,000만 달러를 수출했음

미국 리튬배터리(HS Code 850760) 주요 수입국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중국	1,472,677	1,834,567	2,055,712	46.52	50.53	43.40	12.05
2	한국	767,727	731,965	923,333	24.25	20.16	19.49	26.14
3	일본	516,783	451,910	626,542	16.32	12.45	13.23	38.64
4	독일	47,658	102,576	267,247	1.51	2.83	5.64	160.54
5	헝가리	215	45,598	206,229	0.01	1.26	4.35	352.28
6	대만	72,985	98,192	128,801	2.31	2.70	2.72	31.17
7	말레이 시아	37,109	31,463	94,003	1.17	0.87	1.98	198.77
8	폴란드	11,371	34,202	88,141	0.36	0.94	1.86	157.71
9	베트남	56,584	90,754	74,846	1.79	2.50	1.58	-17.53
10	영국	38,688	39,038	50,190	1.22	1.08	1.06	28.57

자료 : KOTRA 해외시장 뉴스 「미국의 배터리 시장동향」 (2021.3.5.) 참조

-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효율성을 최대로 거둘 수 있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 수요가 급증해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미국 내 생산에 필요한 제조기반, 관련 기술 및 혁신 정신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 이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DOE)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배터리 생산 및 공급역량
-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독과점 상황
-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문제 발생 시 회복탄력성의 제약 요인
- 배터리 주요 제조시설의 지정학적 위치 및 잠재적 위험
- 잠재적 적성국 혹은 불안정 국가가 공급하는 제품 파악
- 배터리 핵심 소재와 관련된 대체 공급원 파악
- 배터리 산업 전반의 산업인력 현황, R&D 역량
- 배터리 공급망과 물류에서의 불안 요인 및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

➤ 아울러 에너지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기차 운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코발트·니켈의 해외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차세대 리튬이온 및 리튬금속 배터리를 개발하고 리튬배터리의 재활용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29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배터리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해법으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자국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본, 한국과 같은 우수한 배터리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우방국 기업을 미국 내 유치하는 방법이 유력함
- 이를 통해 단기간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음

➤ 미국은 배터리 제조기업과 함께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재와 장비 기업도 자국 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미국은 풍부한 원재료를 지렛대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완성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탄탄히 구성할 수 있음
- 특히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연관산업의 발전과 함께 미국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배터리 산업의 내수 시장이 안정화 되면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캐나다를 비롯해 중남미와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음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21년 기준)

제조사	국적	점유율(%)
CATL	중국	32.6
LG에너지솔루션	대한민국	20.3
파나소닉	일본	12.2
BYD	중국	8.8
SK온	대한민국	5.6
삼성SDI	대한민국	4.5
CALB	중국	2.7
Guoxuan	중국	2.1
AESC	중국	1.4
SVOLT	중국	1.0
기타		8.8

자료 : SNE Research 「Global xEV Battery Market Exceeded 296 GWh In 2021」 참조

-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이고 제조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형성된 미국 내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강건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이 수반될 것임
- ▶ 따라서 배터리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제품 및 소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R&D 지원과 생산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특히 배터리 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자국산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 완제품 판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계획이 발표됐음
- ▶ 아울러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재료의 공급망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선 미국 내 확보 가능한 희귀광물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방국 및 파트너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미 국방부는 호주 희토류 가공 전문 기업과 협력해 텍사스주에 희토류 가공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음
 - 테슬라는 스위스의 글렌코어사와 협력해 리튬배터리에 필수소재인 코발트를 대량 확보했음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0년 기준)

(단위 : %)

핵심소재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양극재	57.8	20.2	11.4	10.6
음극재	66.4	8.7	23	1.9
분리막	54.6	11.9	33.4	0.1
전해액	71.7	8.1	20.1	0.1

자료 : SNE Research (2020) 「Global Battery Market Outlook and Key Issue」 참조

참고자료

- KIET 산업포커스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 우리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2021.4.)
- SNE Research (2020) 「Global Battery Market Outlook and Key Issue」
- <https://dream.kotra.or.kr>, (검색일: 2022.6.17.)
- www.usitc.gov, (검색일: 2022.6.13.)
- <https://eiec.kdi.re.kr>, (검색일: 2022.6.20.)
- www.csis.org, (검색일: 2022.6.9.)
- <https://insideevs.com>, (검색일: 2022.6.19.)

이인호 경영학 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Fuzzyworld@yonsei.ac.kr

2022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2년 6월 23일(목) 09:00 ~ 8월 4일(목) 18:00

■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2022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모집 공고



2022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신청기간

2022. 6. 13.(월) 09:00 ~
2022. 9. 2.(금) 18:00



신청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인증기준 및 절차

-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2022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에 따름
- 최종 결과발표(예정) : 2022년 12월 중

유의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조·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인증 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방법

- E-mail 접수(아래주소 참조)

신청 수수료 납부

- 신규 인증 : 300만원, 정기점검 : 150만원
- 납부 계좌: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김동환 전문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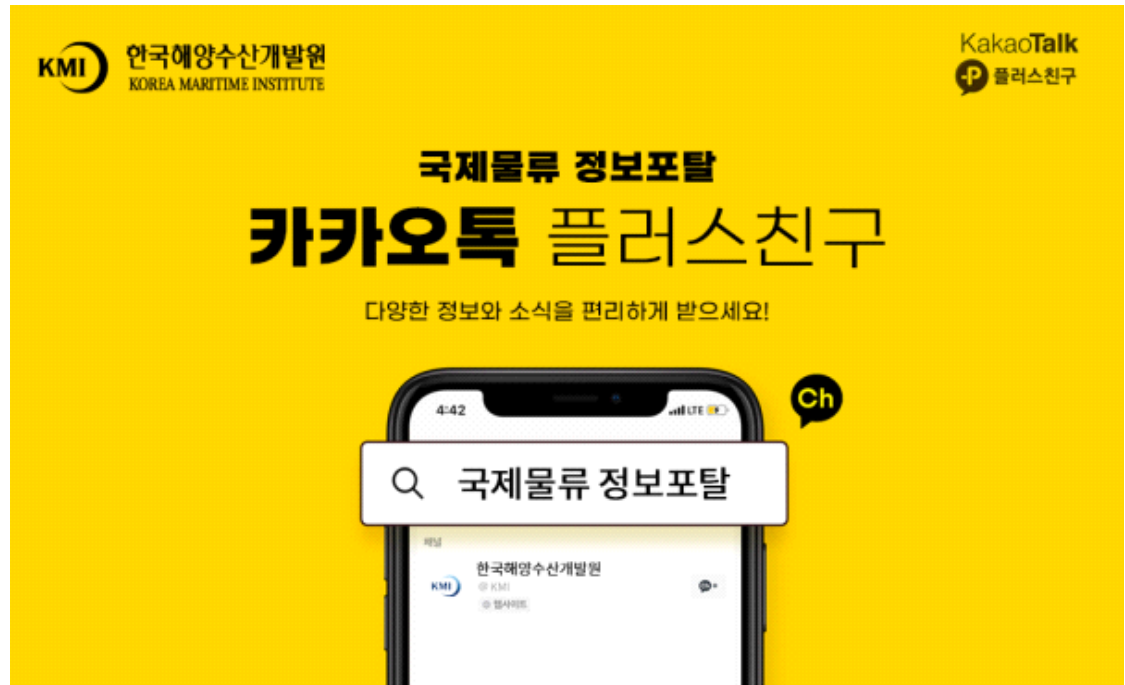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물류창고업등록증(사본) 1부
- 공적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 각 1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현황

2021	우성국제물류(주)	2020	(주)디엔비로지스틱스	2019	비아이디씨(주)	2018	(주)비엔피로지스틱스
2017	(주)대평	2016	동원로엑스(주)	2015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2014	(주)C&S국제물류센터, 캄트로지스부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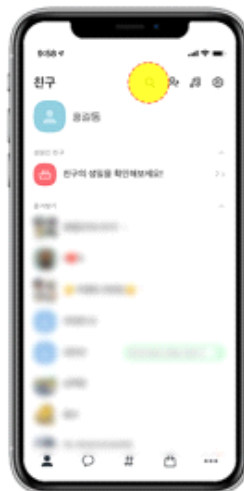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